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 상원 재무위원회, 의료보험 개혁법안 통과

□ 미 상원 재무위원회(Senate Finance Committee)는 지난 화요일 찬성 14, 반대 9표로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통과시킴.

- 의료보험 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환영하는 입장을 표시했으며,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.
- 하원에서는 이미 3건의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통과되어 단일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, 상원에서도 앞으로 재무위원회의 법안과 이미 통과된 보건위원회(Senate Health Committee)의 법안에 대한 통합작업에 착수한 후 상원전체의 투표에 붙여질 예정임.
-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의료보험제도 개선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고, 최종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민영건강보험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S&P 건강보험지수는 1.9% 하락함.

□ 그러나 의료보험 개혁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할 지에 대한 논쟁이 여전하기 때문에 최종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임.

- 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모든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 체류자들이 건강보험을 가지도록 강제하고 이를 돕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며, 개인과 소기업들이 보험상품을 쇼핑할 수 있는 주(州)단위의 거래소를 설립하고,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.
- 동 법안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건강보험옵션이 포함되지 않았는데, 보건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과 하원에서 통과된 3개의 안이 모두 공공건강보험옵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예상됨.
-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민간건강보험사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건강보험옵션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화당의 경우 공공건강보험옵션 도입이 민영보험산업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.

(Insurance Journal, 10/14)